



재외동포청, 모국 첫 방문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격려

- 변철환 차장, 21명과 만찬 간담회...“전통문화 지키며 사신 여러분 존경”

-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4월 24일(목) 오후 서울 동대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모국땅을 처음 밟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만찬 간담회를 열고 환대했다.
 -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(AKNC)가 주관한 이번 모국 방문에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동포 21명이 참가했다.
- 변 차장은 “먼 타국 땅에서도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곳곳하게 살아오신 동포 여러분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다”며, “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”고 말했다.
 -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최 니콜라이 어르신(91세)은 “우리의 핏줄을 잊지 않고 살아왔으며, 처음 한국 땅을 밟지만 낯설지 않다”면서, “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재외동포청에 감사한다”고 고마워했다.
- 지난 4월 22일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은 창덕궁, 청와대, 국회의사당, 한민속촌, 서울타워, 일산 꽃박람회 등을 둘러본 뒤 25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이규현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권오성	032-585-3288